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대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영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어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남보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 한국 YWCA

2016년 10월호  
 October  
 Vol.534

**이달의 생각**

YWCA 100년, 세상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기획**

YWCA 협력운동

**이달의 이슈**

김영란법과 시민단체

**이달의 현장①**

국내 최대자진, YWCA는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 최초의 여성 체육인 김신실

- 레크리에이션, 포크댄스 등 생활체육 보급



김신실(1899~1993)은 한국 최초의 여성 체육인으로 체육교육에 큰 공헌을 했다.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대한YWCA연합회(지금의 한국YWCA연합회) 제23~26대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 여성의 보건에 주목하여 여성체육 보급방안을 제시하고, 생활체육의 보급을 주창했다. 새로운 체육 분야인 레크리에이션, 창작무용, 포크댄스를 소개하고 보급했다.

1913년 정신여자학교 1학년 때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 한인기독교원에 입학한 그는 YWCA와 일생일대의 친구 박에스터를 만났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평생 이어졌다. 오벌린대학에 진학해 체육 전공의 뜻을 밝히니 주임교수가 세계YWCA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힘든 체육학 과목을 전공하겠다고 하는데, 졸업 후 쓸 데가 있겠느냐”고 문의했다. 그랬더니 세계YWCA로부터 “1922년 한국에 YWCA가 창설되었는데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꼭 필요하니 잘 지도하고 격려해달라”는 답장이 왔다. 이를 계기로 체육을 전공하고 1937년 미시간대학에서 체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신실은 YWCA에 깊은 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닥체 삼위일체 정신을 강조한 YWCA는 레크리에이션을 처음 가르치고 보급했다. 김신실은 1930년부터 이화여자전문학교 체육담당 교수로 일하면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강사로 하령회 프로그램을 이끌고 학생YWCA에서 게임을 지도했다. 당시 선교사들도 반대한 포크댄스를 처음으로 가르쳤으며 1959년부터는 체육 교수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고전무용, 현대무용, 민속춤, 미용체조, 펜싱 등 각 감습반을 맡아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YWCA 회장 재임 때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YWCA 활동도 얼마든지 생기발랄하게 웃으며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 참고 : 한국 근대여성 63인의 초상(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한국YWCA 80년사(한국YWCA연합회, 2006)

## 2016. 10 한국YWCA



### 표지이야기

YWCA는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 곳곳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씽크머니, 다래교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애들아 밥먹자 등에 참여한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 2016년 10월 주요 일정

#### 10월 11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10월 12~18일

2016 여성평화걷기 사진전

#### 10월 20일

한국YWCA 정책교육(동부지역)

#### 10월 25일

속초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기후변화와 여성 원탁회의

### 제52권 제8호 통권 534호

2016년 10월 21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린 · 정선경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혜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_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YWCA 100년, 세상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 이명혜
- 05 **말씀 묵상** 겨자씨 하나님 나라 | 김진희

### YWCA 협력운동

- 06 **기획①** YWCA 협력운동을 돌아보다 | 박은실
- 10 **기획②**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 민혜진
- 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다래교실’ | 진사무엘
- 14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 ‘생명꿈나무돌봄센터’ | 이은영
- 16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운동 ‘애들아 밥먹자’ | 권여울
- 18 **기획③** 협력운동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 박란희

- 20 **청년** 청소년 여러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사용해요 | 장선희
- 22 **성평등** 2016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모임 후기 | 김은영
- 24 **이달의 이슈** ‘김영란법’과 시민단체 | 편집실

- 26 **이달의 현장①** 국내 최대지진, YWCA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정은경
- 29 **이달의 현장②** 북한수해지원 긴급모금 | 손서정
- 30 **이달의 현장③** 소비자 권리와 집단소송제도 | 안정희

- 32 **회원활동 현장을 찾아서** 복지관 어린이집 1·3세대 통합프로그램 | 신희정
- 34 **원로에게 듣는다** 조종희 세종YWCA 명예이사 | 편집실
- 36 **세계YWCA** 난민여성을 위한 한국·태국Y 청년들의 연대 | 김진주
-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출판계 페미니즘 바람 | 조태성

- 41 **연합회 소식**
- 45 **회원YWCA 소식**
- 54 **10월의 한국YWCA**

# YWCA 100년 비전을 바라보는 세상의 희망이 되길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여름동안 열매를 단단하게 성숙시켜준 짙은 햇볕과 열기의 끝자락을 모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YWCA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회원대회는 10대 Y-턴 회원부터 60년 넘게 봉사해온 90대 자원지도자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YWCA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연대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1920년대 암울했던 시절 민족과 여성 해방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한국YWCA를 세웠고, 100년 역사를 이어가는 YWCA 회원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어 새 시대 희망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52개 회원YWCA를 중심으로 섬김과 나눔, 돌봄과 살림 정신을 실천해온 YWCA 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새롭게 세상의 희망이 되길 결단하고자 합니다.


“YWCA, 희망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다짐이 생명세상,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

한 사역임을 믿으며, 한국YWCA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운동체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만들고, 스스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주십시오.

특히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준 송기성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님, 이천진 한양대학교 교목실장님, 주철환 아주대학교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YWCA 축제 자리에 함께해준 일본YWCA 마타노 나오코 회장님과 참가자 분들,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리은선 부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전국회원대회 주인공으로 여기에 참석한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박2일 동안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역으로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전국 10만 회원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호에서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2016 전국회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YWCA, 희망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결단을 10만 회원들과 나누고자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환영사를 ‘이달의 생각’으로 실었습니다.

# 겨자씨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4장 30~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김진희 안산대학교 교목

예수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 속에 이루어져야 할 지향이며 복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의 어떤 속성이 하나님 나라를 닮았을까요?”

김홍도가 묻습니다.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신윤복이 대답합니다. “그리움입니다.” 그리려는 대상의 본질, 이미지, 그것을 찾아나선 본원적인 그리움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작음을 아는 겨자씨는 그가 품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일의 출발입니다.


씨앗이 발아하려면 단단한 껍질이 터져야 합니다. ‘겨울의 틈으로 봄이 들어오듯’이라는 조성환 목사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틈이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비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시작될 틈, 그리움이 자라날 틈, 그리고 부활의 은총이 담길 틈. 제가 비워놓은 틈은 얼마 만큼일까요?

멋진 겨자풀이 되는 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실

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존재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곧 다른 생명을 품어주는 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초월입니다. 자기초월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사랑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생명이 있는 작은 겨자씨는 다른 풀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꿈은 다른 생명을 품는데 있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다른 생명을 품기 위해 자신을 실현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자기초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초월의 꿈, 아래로 꾸는 꿈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꿈을 꾸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꿈이자 신의 자기초월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래로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도 아래로 꾸는 꿈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 ‘혼자’ 아닌 ‘함께’ 하는 시대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YWCA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한다. YWCA가 지향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에 공감하고, YWCA의 진정성을 신뢰하며, 52개 회원YWCA 10만 회원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동역자들은 정부, 교회, 시민단체, 기업 등 기관의 종류와 참여한 사람들도 다양하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동역자들도 있다. 꽤 오래전부터 해외원조기관인 독일 EZE(개신교개발협력처) 지원으로 여성 직업훈련을 하기도 했고, 최근엔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글로벌기업과 협력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94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협력과 지원이 있었지만, ‘YWCA 협력운동’으로 발전한 1990년대 이후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 100년의 역사, 협력의 길

Y(Young), W(Women's), C(Christian), A(Association)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YWCA운동의 주요 관심대상은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이다. 여성에 대한 관심은 특히 직업훈련을 통한 경제자립과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일로 모아진다. 여성들이 경제자립을 하게 하되 당시에는 남성 직종으로 여겼던 도배, 전정 등의 새로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YWCA 여성기능대회를 열어 여성이 전문직업인으로서 도전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을 알리면서 1993년 YWCA가 정부와 협력해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신인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세웠다.

일하는 여성들의 삶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아이 돌봄’이었다. 1988년 인천에 ‘시범탁아소’를

박은실 한국YWCA연합회국장

연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보육시설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던 YWCA는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된다.

2009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지원프로그램인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농·산·어촌 영유아 보육 지원, 교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가 많은 보육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고, 공보육 노력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YWCA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2011년부터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해 보육 사각지대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모가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20년대 설립 초기부터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YWCA는 1999년 8개국과 연대해 성매매 경로조사를 했다. 한국에 온 결혼이민 여성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롯데홈쇼핑 지원으로 ‘결혼이민 여성과 함께하는 한하늘 한 땅 운동’을 펼쳐 결혼이민여성 직종개발 연구, 취업박람회와 잡(JOB)페스티벌,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 등 다문화여성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등이 생겼다.

### 여성,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 집중한 ‘협력’

YWCA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향상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을 ‘자기답



YWCA는 1970년대 독일 개신교개발협력처(EZE)의 지원을 받아 도배, 페인트, 타일 등 여성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03년 청소년들의 경제리더십 교육과 함께 여성리더십을 발굴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제정으로 씨티재단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소년 경제생활 교육에 대한 학교 교사들의 제안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인 Success Program을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YWCA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씽크머니(Think Money)’로 발전시켜 금융지식뿐 아니라 나눔과 기부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는 등 금융인성 교육을 결합했다. 학년별 수준과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 교육감 인정교과서를 개발해 공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씨티재단과의 ‘씽크머니’ 협력 성과는 다문화청소년 교육으로 확대된다. 2012년 시작된 다래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독서지도를 통한 어휘력 향상, 정서교육, 역사문화 탐방, 놀이체험, 직업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비전을 갖도록 하는 활동이다. 2014년까지는 방과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나 2015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해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애들아, 밥먹자’는 생명먹을거리 운동을 펼치던 YWCA가 2005년 농협중앙회와 카드업무 제휴를 맺고 쌀 소비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발전된 캠페인이다. 이듬해인 2006년 쌀 소비 촉진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목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 농협이 회원YWCA에 쌀을 기부해 중·고교 학생들의 등굣길에 주먹밥, 떡 등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북한어린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자는 나눔 캠페인, GMO(유전자변형작물)나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자는 캠페인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2011년 한국YWCA와 농협이 환경살리기 운동으로 EM발효액 제조기계를 회원YWCA에 증정하기도 했다.

### 지속된 협력, 지속되지 못한 협력

100년에 이르는 역사에서 YWCA 협력운동은 첫째, YWCA 정신에 입각한 절실함에서 출발하였으며,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시도되지 못한 일도 YWCA와 협력기관이 뜻을 모아서 추진했다. 그중 일부는 YWCA와 협력기관이 먼저 시도했지만, 사회관심 확대로 제도화된 것도 있고, 여전히 제도권에서 받



싱크머니는 2015년부터 산간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재미있는 금융교육 싱크머니 버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들여지지 않는 활동도 있다.

둘째, YWCA와 협력기관의 협업 기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넘어선다. 사업 형태나 내용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기는 했지만, 문제의식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같으면 시간이 지나도 협력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셋째, YWCA와 협력기관이 자신의 전문성과 특성을 발휘해 물적, 인적 자원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상호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역할을 나누고 협업했다.

넷째, 협력사업의 사회 인지도와 영향력, 파급효과가 커졌다. YWCA나 협력기관들이 개별로 수행했을 때보다 참여자와 관계자, 자원이 커지면서 인지도와 파급효과가 시너지를 냈다.


그러나 모든 협력사업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WCA와 포스코는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우리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 사업을 펼쳤다. 회원YWCA와 협력을 맺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해와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공감 프로그램', 학교의 후미진 곳을 바꾸는 '학교공간 바꾸기', 공감을 위한 학교 축제 '친친공감 페스티벌', 포스코 직원들의 직업 멘토링 강연 '꿈의 스토리' 등으로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힘을 모아 큰 공감을 얻었다. 현재는 서울 YWCA와 포스코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YWCA와는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YWCA와 외환은행나눔재단은 인도 마을과 도시빈민지역 주민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Doset) 사업을 전개했다. YWCA를 통해 지구시민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을 '도스뜨'(Doset, 힌두어로 친구라는 뜻)로 칭하고 인도 구와하티, 벵갈로르, 살렘(Salem)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인도 여성과 아동, 빈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영어기초, 보건, 인권, 문화예술 등을 교육했다. 인도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키트 개발,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 직업교육으로 인도 빈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도 인도 지역 여성들은 직업훈련센터를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여성들과 아동을 위해 지원하길 바라지만 계속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YWCA 협력운동을 돌아보면, 그 출발은 YWCA 정신과 가치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지금은 혼자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협력'하는 시대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동역자들과 협력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힘든 여성들과 청(소)년에 관심을 가졌던 YWCA가 지금은 '누구에게 집중하며', '가장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YWCA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 갖는 동역자인 기관들과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과 협력할 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 초청합니다

##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의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14회가 되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여성들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숨은 지도력을 발굴하고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온 여성 리더를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뜻깊은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02) 3705-5000
수상자	대상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젊은지도자상 신애라 (텔런트) 특별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명혜

\* 행사 이후 수상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 문의 : 02)774-9705 한국여성지도자상운영위원회

##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경제시민' 키운다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는 한국씨티은행 지원으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회원YWCA에서 학교, 방학후학교, YWCA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YWCA는 2010년부터 부속기관인 안산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혜진 안산YWCA 안산청소년문화의집주임

### 막막했던 씽크머니, 6년을 함께하다

경제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로 6년째 '씽크머니'를 맡아온 내게 씽크머니는 삶의 일부를 차지한다. 경제 금융교육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이란 재산을 만들어가고 있고 나 역시 성장해나가고 있다.

2010년 처음 씽크머니를 만났다. 안산YWCA 간사를 거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자로 근무한 지 5년차가 되었을 때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맡아볼 것을 제안받았다.

지루하고 딱딱하게 들리는 경제교육을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에 문외한이었던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잘 끌어내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씽크머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고등학생 경제탐구반 동아리인데다가 참고할 만한 교재나 교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청소년지도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흥미를 돋우고 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씽크머니가 이어지고 성장한 것 같다.

### 체험과 협력 중심

씽크머니를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체험 중심이다. 경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녹아 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교육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면 교육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관련 전시관 또는 체험관 견학, 뮤지컬과 영화 관람, 체험부스 운영, 경제 골든벨, 대학교 경제학과 탐방, 나눔장터 개설, 보드게임 활용 등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둘째, 협력 구축이다. YWCA(지역 시민사회)-학교-씨티재단(Citi Foundation)의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지역사회, 수혜자, 제공자의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네트워크 구축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각자 역할에 충실하며 협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화 '찰리와 초콜릿공장'으로 봤을 때 마치 찰리(주인공)는 학교, 윌리윙카(초콜릿공장 사장)는 YWCA, 초콜릿은 씨티재단(한국씨티은행)으로 비유하고 싶다.

셋째, 청소년이다. 매해 초마다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사전요구조사와 기획단 활동을 충실하게 진행했다. 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간 일정을 꾸리고자 했으며 세부 단위별 만족도 결과를 도출한 후 피드백도 잊지 않았다.

청소년이 직업 강사교육을 받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보조교사로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



9월 22일(목) 경기 안산시 선일중학교에서 '착한 기업가'를 주제로 진행된 씽크머니 수업현장




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Big brother&Big sister'라는 경제교육 멘토링 활동을 만들기도 했다.

### 지역사회, 수혜자, 제공자의 삼박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다행히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정착했고, 성장해나가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우수YWCA 회원상 수상, 우수동아리상 수상, 2014년 우수학교협력상 등의 영광을 안았다. 뿐만 아니라 씽크머니 활동을 모티브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개발했으며 2015년 씽크머니 활동에 대하여 제18회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소장상(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을 받았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 씽크머니는 안산청소년문화의집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씽크머니와 함께한 나의 성장도 빠트릴 수 없다. '0'부터 시작한 청소년 경제교육을 지금은 '8, 9, 10'을 향해가고 있다. 2013년에는 홍콩에서 열린 '제10회 씨티-파이낸셜타임즈 금융교육회의(The 10th CITI-FT Financial Education Summit)'에 연수를 다녀왔다. 2014년에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미래발전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서 그동안의 씽크머니 활동을 공유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6년 복직하자마자 '아시아청소년 금융교육 국제캠프(Asian Youth Financial Education Camp)'에 참가해 국제프로그램 경험을 쌓았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씽크머니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7개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주최한 아시아청소년 금융교육 국제캠프에서는 한국 등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 금융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안산강서고등학교 경제탐구반 동아리 졸업생 출신 제자가 발표자가 되어 씽크머니 활동경험과 앞으로 포부를 밝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던 기억도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씽크머니를 시작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안산 씽크머니는 어느덧 6년이 흘렀다. 매해마다 성장하려고 노력하지만 교육 내용 확장,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방법, 체험활동 개발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는데 씽크머니가 견인차이자 롤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씽크머니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교육을 경험하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 시민사회 실무자로서 나 역시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해야 할 것이다. 

## 다문화청소년 삶을 비춰주는 '다래교실'

다문화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이라는 뜻의 다래교실은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모색을 돕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한국씨티은행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논산, 안산, 의정부, 진주, 진해, 청주, 충주, 파주, 하남 등 9개 YWCA와 지구촌사랑나눔, 한국폴리텍 다습학교에서 진행한다. 한국폴리텍 다습학교 진사무엘 교사는 2013년부터 다래교실을 맡고 있다.

진사무엘 한국폴리텍 다습학교 교사

### 처음엔 백번이나 '안 되겠다' 를 외쳤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습학교는 한국YWCA와 협력하여 2012년부터 다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비전교육과 한국어·컴퓨터 중심의 진로교육, 체험학습을 통해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 문화를 배우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다래교실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2013년 다래교실을 전임자에게 이어받았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특히 처음 학생들과 만났던 4월의 교실 풍경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래'가 노래인 줄 착각해 노래를 배우는 수업으로 알고온 베트남 학생, 선생님이 시켜서 그냥 왔다면서 투덜거리는 학생, 한국말이 어눌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 등...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간에, 학생들 간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우며 자기 주도성이 생기자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전 교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한국에서 이뤄야 할 목표와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은 참으

로 대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의 공동체 문화인 '우리'라는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다래교실 학생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회의를 통해 직접 다래교실을 만들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은 더욱 높아졌고, 열정은 넘쳤습니다. 자라오면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며 위축된 학생들이 다래교실을 통해 마음껏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문희

다래교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문희입니다. 문희는 2013년 6월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방글라데시에 있었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며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한국어 공부를 하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걸으려는 늘 밝은 모습으로 생활했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마음속으로는 환경을 탓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래교실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아리 회장도 맡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가치관과 비전을 찾



학생과 함께하고 있는 진사무엘 교사(왼쪽)

아갔습니다. 가장 성실하게 컴퓨터 수업을 배우더니 컴퓨터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다래교실에서 자신감을 찾은 문희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문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천에 자리한 동양밴드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아 할머니와 동생이 갖고 싶은 선물을 살 수 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에서 문희 학생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준 다래교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 순간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글로벌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더욱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를 향한 편견이나 오해의 시선은 아직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다문화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겪어온 차별과 비난의 상처로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문화시대 청소년 미래를 위한 다래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사회 각층의 노력이 더욱




한국폴리텍 다습학교 '다래교실' 학생들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발맞춰나가는 것은 한 순간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래교실 학생들과 같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비전을 확립하고,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삶의 보람과 능력을 키워나가며, 전문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주민 자녀는 20만명이 넘습니다.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편입과 취업의 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래교실은 이러한 다문화청소년들이 낯선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청소년기에 밝은 등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여 자신의 직업역량과 특성을 확인해보는 비전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기술교육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 생명꿈나무돌봄센터, YWCA 보육운동의 맥을 잇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YWCA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농·산·어촌과 도농복합지역의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민간지원 아동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파주, 하남, 논산, 제천(덕산·화산), 안동, 사천, 광주 광산구에 센터를 열었고, 연내까지 속초, 순천 등 모두 1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돌봄과살림위원회 위원장

최근 'YWCA, 민간지원 첫 다문화아동 돌봄센터 열다'라는 기사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10월만 해도 7일(금) 경남 사천, 11일(화) 광주광산구 월곡동, 25일(화) 강원 속초에서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전국 8개 지역에서 9개의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 연내 11개까지 확대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공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3세부터 10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보육과 교육, 복지서비스는 물론 가족상담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교육은 사회성 발달을 위한 예절교육, 독서교육,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술과 신체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중심의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분기별로 다문화가정 부모 참여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문화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특화하고 있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동해, 제천, 파주, 하남 등 4개 지역에 5개 센터가 개설돼 4,409명의 영·유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2016년 9월부터 안동, 사천, 광주, 속초, 순천(11월 예정) 등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6년

동안 5,425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시민단체의 아동보육 활동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고령화된 농·산·어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귀농인구 유입 등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마다 4명 이상씩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YWCA가 꿈꾸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을 시민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아동·지역복지에 기여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

19개 생명보험사가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사회공헌(CSR)으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지원하면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 되고 있다. '2015 대한민국 CSR필름페스티벌'에서는 '보육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럼 시민단체인 YWCA가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운영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YWCA는 두 가지 차원의 성과를 기대한다. 먼저 1950년 이후 본격화된 한 YWCA 보육운동의 맥을 잇는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이다.

여성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YWCA의 보육운동은 긴

역사를 지닌다. 1920년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탁아사업, 1952년 전쟁 고아 돌봄을 위한 광주 성빈여자 설립과 운영, 1988년 노동부 시범탁아사업인 인천 선학어린이집 운영 등 2016년 현재 전국 20개 회원YWCA에서 24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성장해왔다.

2002년 YWCA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으로 '21세기 새로운 유아교육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을 결정하고 전국 YWCA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벌여 조직정비는 물론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등 YWCA다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6년 YWCA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을 주제로 보육운동을 전개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YWCA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낡고 오래된 화장실과 조리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554개 지역아동센터 화장실과 조리실 환경을 개선한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 기준을 정비하는데 일조했으나 아쉽게도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쉽프로그램과 아동의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소외계층 아동의 문화감수성을 높였다.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YWCA는 '키다리(키우자 Y다운 리더)' 프로그램으로 연계했다.

정부는 다양한 보육정책과 보육비 지원책을 쏟아내고, 기업은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




논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 아이들이 10월 14일 '쿠기에 초코판으로 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램을 운영하지만 대도시엔 편중돼 농·어·산촌 등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취약계층 등의 보육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 YWCA 지역 복지운동의 현장

다음으로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YWCA 목적에 부합하는 YWCA다운 부속시설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52개 회원YWCA가 300여 개의 복지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서면서 대부분 부설기관들이 위탁 운영을 시작했으나 위탁 운영의 한계로 YWCA 목적과 정신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위탁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YWCA 역량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YWCA 지역 복지운동을 펼칠 수 있다.

YWCA는 앞으로도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YWCA 목적을 실현하며 YWCA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다. 

## 주먹밥과 저금통 북한어린이도 돕는 '애들이 함께 밥먹자'

YWCA는 2006년부터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침밥 먹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이 YWCA와 제휴한 '굿모닝미인카드'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20개 회원YWCA가 참여하고 있다. 부천YWCA가 9월 23일 학부모와 학생들과 함께 부천부곡중학교에서 펼친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의 소감을 심는다.

권여울 부천부곡중학교 3학년



9월 23일(금) 부천YWCA가 부천부곡중학교에서 '애들이 함께 밥먹자' 캠페인을 하고 있다. 권여울(오른쪽에서 두번째) 학생도 참여했다.

내가 다니는 부천부곡중학교에서는 매년 통일에 대한 특강이나 통일문제창작대회의 행사를 한다. 하지만 친구들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다.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청소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강 때문에 수업이 빨리 끝나는 건 모두가 좋아하면서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듣는 학생들은 반에 네다섯 명꼴로 드물다.

우리나라 주인은 우리 청소년들일 텐데 이렇게나 무관심해도 될까? 정말 통일은 어른들의 몫일까? 지난 9월 23일(금) 우리 학교에서 열린 부천YWCA와 함께한 '애들이 함께 밥먹자' 캠페인은 통일과 북한 아동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가 이뤄야 하는 통일이니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북한 어린이들은 식량난으로 영양실조, 발육부진 등을 겪고 있다. 이런 어린이들이 우리 도움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 일원이 된다면 청소년들도 통일에 힘을 보탬 것이나 다름없다.

YWCA 회원들이 준비해온 주먹밥을 봉사 학생들과 등교시간 전에 미리 정문, 후문에 준비해두었다. 친구들이 등교하는 8시 30분부터 주먹밥을 YWCA 북한어린이돕기

저금통과 함께 나누어주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북한 어린이 식량난의 심각성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동전 하나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번에도 무심히 지나치면 어쩌나 하는 우려와는 달리 친구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북한 아동의 영양문제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꼭 가득 채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친구들도 있었다. 출근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주먹밥은 사양하더라도 저금통은 꼭 챙겨가시며 응원의 말씀을 건네주셨다. 특강 같은 행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고맙고 또 기뻐했다.

작은 캠페인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니 뿌듯함은 물론 통일에 청소년들의 힘이 보탬이 될 것 같은 자신감도 붙었다. 비록 거창한 캠페인은 아니었지만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 청소년들도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캠페인은 나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알았으니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사먹었던 간식 값으로, 들고 다니기 귀찮아 책상 한쪽에 쌓여있던 동전들은 모두 저금통에 들어갔다. 혼자보단 사람이 많이 참여할수록 효과가 커지니 동생과 엄마께도 북한 아동의 영양문제를 알려 가족 모두가 함께 모금 중이다.

캠페인에 같이 참여한 친구들을 비롯해 후배, 친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가족, 다른 지역의 친구, 전교생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작심삼일의 다짐이 아닌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작지만 큰 나의 부탁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한민

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부탁이기도 하다.

가장 감사한 것은 부천YWCA이다. '애들이 함께 밥먹자'라는 좋은 캠페인을 열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나와 친구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부천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해서 남한 학생들의 위로와 도움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잘 전해주길 소망한다. 



강릉YWCA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2016.6.16 강일여자고등학교)



거제YWCA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2016. 6.17 경남산업고등학교)



충주YWCA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2016.5.26 충주고등학교)

# 왜 지금은 협력이 중요한가

박란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장

사회혁신 관련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청중이 질문했다. “왜 예전과 달리 지금은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한가.” 그에 대한 답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예를 들었다. 1996년 6월 5일자 각 언론사 사회면에는 ‘정부 산아제한 정책 35년 만에 폐지’라는 기사가 실렸다. 1960년 6명이던 출산율이 35년 만에 1.75명으로 떨어져 정책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이다.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각종 선전구호가 말해주듯, 당시 정부는 ‘공무원 3자녀 불이익’과 같은 강력한 정책까지 밀어붙였다. 지금은 어떨까.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무려 150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1.2명으로 더 떨어졌다.

앞으로 2020년까지 198조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힘만으로 해결될까? 불가능하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청년실업 해소,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해결 등 각종 실태가 함께 풀려야 하는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다.

##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영국, 미국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일찌감치 ‘정부 주도’가 아닌, ‘파트너십의 힘으로’라는 기조가 뚜렷하다. 영국은 캐머런 전 총리시절 아예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사회가 함께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협치와 ‘빅 거버넌스

(Governance)’를 주장한다.

영국은 비영리단체 17만개, 사회적기업 19만5000개까지 합치면 제3섹터에 고용된 직원 수가 2,382만 명으로, 영국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일한다. 제3섹터 전체 자산규모만 해도 318조원이다. 자선단체·사회적기업·기업의 사회공헌·공익재단·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3섹터청(The Office of Civil Society)’까지 있다.

미국도 시민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비영리단체 수는 160만개가 넘고, 기부금 총액은 335조로 우리나라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 비영리 부문은 영리 못지 않게 경쟁도 치열하고 혁신도 거듭된다.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자. 영국에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한다.

런던시 외곽에 위치한 타워햄릿(Towerhamlets) 자치구도 그 사례 중 하나다. 인구 28만4000명, 75% 이상이 다인종인 런던의 최고 낙후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에 통합형 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영국 웨스터민스터사원이나 빅벤과 같은 유명 관광지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 비결은 바로 ‘주민참여형 모델’이다. 2013년부터 9개월간 모든 가구를 상대로 한 설문과 심층인터뷰

(FGI) 끝에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 모형이 만들어졌다.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서관 12곳을 허물고, 대신 직업 훈련과 보건교육, 심리상담 등 통합서비스가 이뤄지는 도서관 5곳으로 재탄생시켰다. 민관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때, 이런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함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시민사회와 기업이 협업한 ‘고교중퇴 방지’

시민사회단체가 기업과 만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는 미국 최대의 비영리단체인데, 모금액만 5조원이 넘는다. 역사가 130년을 향해가고 있고, 기부자 숫자는 1,100만명, 자원봉사자 수는 300만명이다.

유나이티드웨이 기부금의 85%가 파트너 기업의 종업원들이 내는 페이롤기빙 payroll giving, 직장인들이 급여의 일부를 내는 기부)인데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월마트, P&G, UPS 등 대다수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의 협업은 어떤 임팩트를 낼까. 유나이티드웨이는 10년 연구 끝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초가 되는 교육(Education)·소득(Income)·건강(Health) 분야를 핵심 어젠다로 정했다.

그 중 교육분야 목표(고교 중퇴 방지)를 보니 1998년 71%였던 고교 졸업률은 2010년 78%까지 높아졌고, 2018년에는 87%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어찌 보면 정부가 할 일인데, 기업 후원을 받은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사회혁신’ ‘임팩트’ ‘협력과 파트너십’ ‘지속가능성’과 같은 이슈들이 몇 년째 지속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도 바뀌고 있다. 최근 구글에서 실시한 ‘임팩트챌린지’와 삼성-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등의 공모전 방식이 등장한 것도 결국 ‘사회변화’와 ‘임팩트’를 보겠다는 것이다.

구글 임팩트챌린지에서 5억원의 지원금과 멘토링 기회를 얻은 비영리단체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직원 수 5명 미만의 신생 비영리단체다. IT기술을 이용하거나, 문제해결방식을 거꾸로 뒤집어보거나,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드는 등 전문성과 기술, 혁신 등이 그 비결이었다.

##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죽은 단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당장 무인자동차와 공유차량 ‘우버’와 같은 서비스로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플랫폼을 가진 1% 슈퍼파워 그룹과 실직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99%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사회문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이상 해결방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을 쓴 세계적인 석학인 기 소르망은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비영리 단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이야말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죽은 비영리단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를 둘러싼 지형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SNS를 통한 시민운동,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을 통한 문제해결, 클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모금과 임팩트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해결 플레이어(player)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

YWCA를 포함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에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지니고, 그 임팩트를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팬층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정부,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만언니 역할도 꼭 필요하다. 

# 청소년 여러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사용해요!

장선희 광주YWCA 간사



순천YWCA가 9월 22일(목) 성동초등학교에서 '화장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으로 한 조사결과, 메이크업 화장품 사용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친구들과 영향과 예뻐지고 싶어서 화장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용 중인 얼굴 메이크업 제품(피부표현, 눈표현, 입술표현)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비비크림과 립밤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아이섀도(광주)와 마스크라(순천·여수)도 많이 사용했

다. 구매장소로는 화장품 전문매장(38%), 다이소매장(3%), 문방구(1%) 등이었다.

3개 지역 화장품 전문매장(8곳), 다이소매장(4곳), 문방구(4곳)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메이크업 제품 87개(피부표현, 눈표현, 입술표현)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화장품 제조 시 모든 성분을 함량 순서대로 제품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50ml 또는 50g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 때문에 표기가 어려우니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 번호나 주소, 전성분 표시책자를 비치해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전문매장

외모가 최우선 가치로 평가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막론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무분별한 화장품 사용은 성인들보다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피부와 눈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발달로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은 10대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광주YWCA, 순천YWCA, 여수YWCA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과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실태 조사, 의식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화장을 구입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화장

광주(남녀 400명), 순천(남녀 300명), 여수(남녀 300명) 지역에서 초등학교 3~6학년 1,000명을 대상

에서는 68개 제품 중 화장품 전성분 표시는 46개(67%), 유통기한은 62개(91%)로 대체로 표시가 잘 되고 있었다. 다이소매장(4곳) 12개 제품은 전성분 표시와 유통기한 모두 잘 표시되어 있었다. 문방구(4곳)는 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은 잘 표시되어 있었고, 전성분표시는 2개 제품에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50ml, 50g 이하 성분 즉시표시 의무화 필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700명(70%)이상은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고,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66명(26.6%)에 불과했다. 화장을 구매할 때 전성분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가를 물었더니 85명(32%)만 '확인하고 구입한다'고 대답했다.

50g이하 제품은 용기 즉시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10대 청소년들이 마스크라, 립밤, 립틴트, 섀도우 등 메이크업 화장품에서 50g이나 50ml이하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전성분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현행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보완이 꼭 필요하다.

10대 청소년들이 화장을 구입할 때 전성분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면서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부작용이 생긴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화장품 사용만 중단(8%)', '화장품은 사용하고 부작용도 방치했다(3%)',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3%)'로 나왔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화장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피부 부작용이 생겨도 적극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화장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알리기

10대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화장품(기초, 메이크업)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 등에 대한 바른 정보제공과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 사용법, 피부 관리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청소년기에 화장을 일찍 시작해서 피부와 몸에 생길 수 있는 성조숙증, 피부트러블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광주YWCA, 순천YWCA, 여수YWCA는 9월 22일(목) 3개 지역에 있는 진제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장을 구매하기 전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을 구매하는데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화장품 전성분표시 확인 방법과 유통기한 확인, 화장품 유해성분 알아맞히기 퍼즐, 화장품 사용 후 바른 세안법 등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화장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렸다.

광주, 순천, 여수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청소년 화장품 사용실태 조사활동은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화장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1. 화장품 사용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한 뒤 사용해주세요(스패출러 사용 권장).
2. 화장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공기와 접촉 시 변질 가능성이 커짐).
3. 화장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4. 화장품 도구는 주기적으로 자주 세척해주세요.  
(피부의 땀, 노폐물이 묻은 도구에 세균이 번식해 피부 트러블 유발).
5. 화장품은 사용 직전에 개봉해 사용해주세요.

### 알면 유익한 소비자정보

- ▶ 화장품 전성분 검색 앱(화해)
- ▶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 ▶ 식약청 화장품 성분검색 (http://ezcos.kfda.go.kr)
- ▶ 소비자피해상담 1372

# 교회 안 '유리천장'을 깨기 위하여

김은영 한국YWCA연합회 간사

## 여자라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4년 전 내 영적 멘토이면서 당시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던 한 교회 선배로부터 “여자라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왜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2016년 8월 28일(일)부터 9월 2일(금)까지 미국 감리교 총회고등교육사역부(GBHEM)에서 주관하는 2016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모임(2016 Global United Methodist Clergywomen Gathering)과 제18차 세계연합감리교 총회가 미국 휴스턴에서 열렸다.

사역을 맡고 있는 ‘평신도사역자’(집사 목사 deacon), ‘사제’(elder), ‘감독’(주교 Bishop)은 물론 신학생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여성성직자 안수 60주년과 평신도 지도자 정회원제도 2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했다.

특히 ‘하나 : 세계적 교회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이슈화하고,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7개국 450여 명의 여성목회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총회고등교육사역부(GBHEM) 목회자 평생교육 디렉터이면서 2016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 모임을 주관하는 총괄 책임자인 박희로 목사가 참석했다. 박 목사는 지난 5년간 이번 여성성직자 모임 개최를 준비했다. 한국YWCA에서는 연합회 실무자 두 명이 참석했다.

## 교회 안 성차별 관행

첫째 날, 개회예배에 이어 박 목사가 미국 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들의 노력과 결실에 대해 보고했다. 박 목사는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여성목회자가 1956년 27명에서 올해 1만 2,300명으로 50배 넘게 늘었지만,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별 임금격차가 평균 20%대로 알려진 미국에서 목회자의 남녀연봉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목회자 평균연봉 5만 5,000달러(한화 약 6,000만원)에 빗대어 보았을 때 여성목회자 사례비가 평균 13%를 적게 받는다고 박 목사는 설명했다.

인종별 사례비 격차에서는 다른 인종 여성목회자가 백인 여성목회자에 비해 9~15% 적은 사례비와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미국 연합감리교 산하 3만 2,603개 교회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3.6%가 남성목회자이며 여성목회자는 26.4%에 그치고 있다.

이어 각국 사례발표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도전 과제, 개선방법 마련을 위한 소그룹 토론이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소그룹 토론에서 독일, 미국, 짐바브웨, 체코공화국 현지 사역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높아지는 여성교역자의 무보수 비율, 낮은 사례비, 잔무처리, 과중한 업무, 결혼과 임신으로 좁아지는 목회 입지 등이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어떻게 하면 여성성직자들로서 온전한 평등과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격려했다.

각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며 한국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다. 목회자로서 역할보다는 사모·여전도사 역할 중용 등 출신, 지역, 배경에 상관 없이 이들이 사역 현장에서 마주치는 각종 차별 문제와 대응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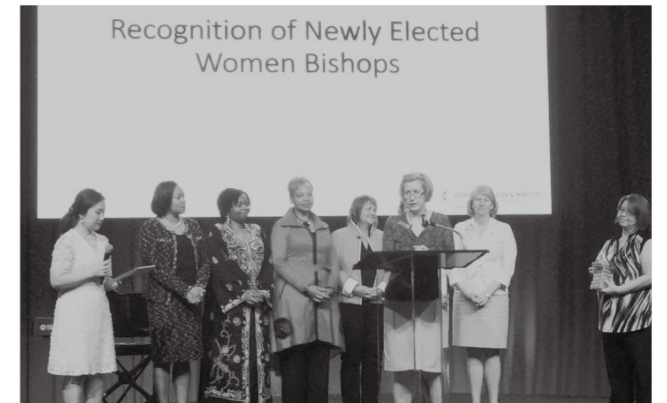
인종, 계급, 성차별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제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똑같이 창조된 남녀가 모인 교회에서조차 여성이기에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온전한 정의를 향한 여성성직자의 노력

최근 한국은 매해 조사하는 각종 양성평등 지표에서 계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한국은 36.7%의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반면 ‘유엔개발계획 젠더불평등지수(GII)’는 높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초 총신대학교(예장합동 교단 산하)에서 여성목사 안수가 이뤄지기를 공개석상에서 기도한 한 신학자의 강의가 철회되고 그 자리에 배석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신학자의 여성학 강의도 갑작스레 철회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예장통합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여학생 비율은 30~50%에 이르지만 여성 총회대표 수는 전체 총회대표의 1%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다.

역압이 아닌 해방을 가르쳐야 하는 기독교에서 한




신임 여성사역자들이 2016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모임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의 오랜 남존여비 가부장 제도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은 결국 여성목회자의 길을 걷는 청년들과 여성교역자들이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되고 말았다. 남성위계로만 움직이는 교회문화를 개선하고, 현존하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교회 강단은 남성만이 설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여성 스스로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목회자 안수를 금지하는 성차별적이고 종교 탄압적인 관행과 제도에 맞서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성평등 정책 제안을 이어가야 한다.

YWCA와 같은 평신도 사역기관도 교회 안 차별 해소를 위한 근본해결 방안을 깊이 고찰하고, 젊은 여성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킹 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모임은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특히 교회 안 성차별적 관행을 깨기 위한 여성성직자들의 행동과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에 뜻하는 바가 깊은 자리였다. 

# YWCA 회원들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 편집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관행이나 상규 등의 명목으로 묵인되던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지 5년 3개월만이다. 2012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발의한 지 4년만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OECD 부패지수 9위의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청렴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만연된 청탁문화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등과 그 배우자로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들도 적용 대상이다. 관공서, 학교, 병원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곳에서 법이 적용되고, 이들과 어울리며 생활하는 일반인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다. 우선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 배속 등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원 미만일 경우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5·10 규정'은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1회 1인에게 받을 때 액수다. 당장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3·5·10 규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구분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 시민단체 정기간행물과 관련자도 적용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를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즉, 시민단체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발간하는 기관 소식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정기간행물이나 기타간행물로 등록했다면 언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돼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다. 다만, 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을 받는다. 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원과 대표 발행인까지 적용된다.

또한 시민단체 소속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이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의 자문위원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로서 YWCA 회원들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적용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집을 참조해 Q&A로 풀어봤다. 

Q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후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기관 소식지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가.

“그렇다. '김영란법'상 단체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 정기간행물이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언론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적 대상이다.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로 바꾸거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발행 업무 종사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원 및 대표 발행인까지 적용된다. 만약 홍보팀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그 단체의 회장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홍보팀 및 회장이 적용대상이다. 만약 법인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Q 정보간행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기 간행물과 어떻게 다른가.

“법에 의하면 정보간행물은 보도 논평,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사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일컫는다. 가령 단순 정보만 전달하는 생활 정보지 등이 정보간행물에 속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간하는 '사랑의열매'는 정보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다.)

Q 시민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Q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고시, 훈령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등이다.”

# 국내 최대지진, YWCA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은경 울산YWCA 사무총장



국내 최대 지진이 일어난 9월 12일.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바닥과 조명등을 보면서 낯선 느낌에 놀랐다가 지진임을 깨닫고 현관문으로 급하게 나왔다.

현관문 앞에서야 재우고 나온 아이가 생각났다. 그냥 선 채로 아이 이름을 불렀던 소름 돋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날 밤은 지나갔지만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여전하다. 그날 이후 ‘쿵’ 하는 소리와 흔들리는 창을 볼 때 그리고 높은 건물에

들어서면 느끼는 공포감을 지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 9월 12일, 후쿠시마 비극을 떠올렸다

지진 후 가장 마음에 와 닿는 키워드는 ‘각자도생’이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일본의 지진대비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고, 지진 알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며 생존가방을 꾸리는 이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대피방법과 도움 청할 곳 등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제 이웃들은 만날 때마다 안부와 안녕을 묻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고, 9월 12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5.8 지진이 일어나 제주까지 흔들렸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재해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한국수력원자력,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가 보여준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국민안전처의 능력대응과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실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국민안전처의 알림 문자를 받기 전에 지진을 먼저 겪은 시민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에 없었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마저 먹통이었다. 게다가 KBS를 비롯한 주요 TV에서는 뉴스특보가 아닌 드라마가 방영되는 황당한 일을 겪으며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견뎌야 했다. 더욱이 진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월성원전은 지진 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가동 중단이 결정됐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2011년 후쿠시마의 비극을 떠올렸을 것이다.

## 더 무서운 것은 핵발전소

우리가 분개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어본 결과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영남권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점, 연구 자료를 무시하고 양산단층 인근에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을 잇따라 짓고 앞으로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건설 예정인 원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원전과 지진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우선 책정하고, 우리나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 원전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진 앞에 무력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보면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진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았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고리원전 인근에 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의 추가건설까지 승인했다. 정부는 핵발전소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지진에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원자로 내진 설계기준을 뛰어넘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 판단인가!

## 이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백지화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경고를 들으면서 재난 앞에 무력한 인간의 나약함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번 지진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경고다

이번 재난을 겪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이 있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으로 선회하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한국YWCA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백지화’ 사업을 긴급 사안으로 결정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는 행정적으로는 힘겨운 싸움이지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경주 지진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주었고, 지진과 핵발전소를 다시 고민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백지화’는 동부지역이나 일부 회원YWCA의 일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동참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작고 미약한 우리를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 20일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을 소개한다.

“진정한 공포는 방금 끝난 지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하는 공포다. 지난 2001년 일어난 911테러, 그 혼돈의 와중에 빛난 뉴욕시장 줄리아나가 떠오른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나서서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시민들의 안심, 믿음을 말이다.”

# 불안해서 못살겠다, 지진위험지역 핵발전소 중단하라!

지난 9월 12일(월) 경주에서 규모 5.8지진 발생 이후 YWCA는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안양, 천안, 춘천 등에서 지진 위험지역 핵발전소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1인시위를 진행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9월 27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청계광장, 을지로를 거쳐 명동까지 탈핵행진을 벌였다.



부산YWCA 서면 주디스태화거리 캠페인(9.27)



안양YWCA 경기도의회 긴급기자회견(9.29)



대구YWCA 동성로 캠페인(9.27)



대전YWCA 회관앞 캠페인(9.27)



안양YWCA 평촌중앙공원 캠페인(9.24~25)



천안YWCA 천안흥타령축제 캠페인(9.30)



한국YWCA연합회 서울 광화문 기자회견 및 캠페인(9.27)

#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해야

손서정 한국YWCA연합회 간사

지난 8월 말 한반도 최북단의 함경북도 지역에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생겼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계속된 집중 호우는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6개 지역에서만 총 6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평양조정관실에서는 현재까지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되었으며, 가옥 2만 채가 무너져 과거 홍수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했다고 보고했다.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제적 십자사, 유엔 세계식량계획,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등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각계에 긴급지원을 호소하며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국내 대북 인도지원단체들 역시 수해지원금 모금운동을 시작하며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북측과 접촉할 의사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인도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북한 수해 직후 중국 접경 지역을 방문한 국내 인도주의 지원단체는 함경북도 지역 상황이 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함을 직접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살던 집은 매몰되고 다니던 유치원과 학교도 무너진 상태다. 유니세프는 더러운 식수로 배탈과 설사를 겪고, 영양실조와 감기,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며 보건소를 찾는 어린이 환자가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지역 아동의 영양상태와 복지수준이 수해 이전에도 북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함경북도 지역은 10월 중순이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 곧 다가오는 겨울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극심한 식량난과 추위로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깨끗한 식수와 위생, 보건, 영양과 대피소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때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은 식량, 보건, 주거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제재에서 제외됨을 특별히 강조했다. 전쟁이나 재난상황에 발생한 피해자들을 국제적 상관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한 국제협약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핵무기 개발 논쟁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제3의 경로나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긴급지원을 하고자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치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YWCA는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북한수해긴급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모금활동 계획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우리 정성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 ■ 거액을 지불한 다우코닝, 맥도널드, 존슨앤존슨

1998년, 여성 유방확장용 실리콘 겔의 세계 최대 판매업체 다우코닝은 인체내 실리콘 파손 누출로 인한 부작용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배상금 32억 달러(3조 8,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199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피부가 썩는 등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30만 명. 다우코닝은 피해 여성들의 소송이 계속되자 1998년 7월 손해배상금에 합의하고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1995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은 맥도널드의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은 79세 할머니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액을 16만 달러(1억 8,000만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48만 달러(5억 4,000만원)로 결정해 보상적 손해배상의 세 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맥도널드처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린 것이다.

2016년 5월,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존슨앤존슨 파우더 제품의 난소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630억원을 배상 판결했다. 앞서 2월에도 미국 법원은 존슨앤존슨 파우더를 35년간 사용하다 난소암으로 숨진 여성에게 7,200만 달러(약 8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원고 개인에게 인정한 피해액은 57억원이었지만 법원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형벌적 책임에 대한 징벌 배상액으로 560억원을 더한 것이다.

## ■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당한 기업들은 망했을까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모두 망했을까. 그렇지 않다. 커피 소송 이후 맥도날드는 커피컵 표면에 화상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커피 홀더 개발과 커피컵 재질에 온도를 차단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다우코닝사는 한때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컸지만 조직을 개편하고 혁신을 통해 지금은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옥시레킷벤키저 가슴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극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그 피해보상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그뿐인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대형 유통사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이케아가 구 피해 등 우리나라의 소비자 피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이같이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을까?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잇따른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면 지금의 미흡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옥시 사태처럼 최악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반사회적 기업에게 확고한 책임을 묻고, 사후 피해구제에서 개인들의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이 불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벌금보다 많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로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소비자 피해는 소액이 다수인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개별 소송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아 개별 법적 대응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그 판결효과가 피해 소비자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개개인이 단독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함께 도입된다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가 있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한 소비자단체들이 9월 13일(화) 서울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을 경우 그러한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 ■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제도

YWCA를 비롯한 소비자 10개 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뼈대로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화) 서울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고, 10월 중 소비자들의 서명지를 모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단소송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집단소송법이야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봉'이 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 윤리와 도덕적 철학이 없는 기업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이 더 이상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이번 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요

신희정 청주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원장



복지관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았다.

## “아이고 귀여워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관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복지관이 개관한 2000년 3월에 함께 문을 열었다.

우리 어린이집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복지관에 오가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특히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어르신들이다.

아이들이 실외 활동을 하러 바깥으로 나가면 복지관 내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항상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곤 한다. 이때마다 아이들은 병아리같이 귀여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예외 없이 “아이고 귀여워라”, “어쩜 이렇게 예뻐까”라며 화답을 해주신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인자한 얼굴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어르신들의 덕담으로 우리 아이들은 분명 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이러한 고마움의 마음을 어르신들께 표현하고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요’라는 제목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영유아활동을 기획하였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핵가족화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 “재롱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사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어르신 담당 복지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한 뒤 구체적인 활동을 영유아들과 함께 만들어나갔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경로식당 앞에서 인사드리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일주일동안 원아들이 당번을 정해 식사하러 오는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인사 피켓과 응원털이개를 흔들며 “맛있게 드세요”, “골고루



경로식당 앞에서 인사드리기

많이 드세요”라며 밝은 모습과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고, 어르신들은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더 큰 함박웃음을 지으며 “그래~ 고맙다”, “아이고 예뻐라”를 연신 외쳤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경로식당 예쁘게 꾸미기. 지난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인사드리고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경로식당 한쪽 벽면에 전시했다.

사진 바탕색지가 알록달록해서 벽면이 화사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진에 담긴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이 화사함의 진짜 이유였다. 어르신들이 한 번씩 와서 사진을 둘러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참 좋았고, 사진 밑에 적힌 ‘재롱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문구가 또 한 번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

## 더불어 삶의 즐거움

세 번째 프로그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과 함께하는 송편 빚기. 아이들은 저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공주와 왕자가 된 듯 으쓱해 보이며 초대받아온 어르신들께 아주 의젓하게 또는 영성하지만 사랑스럽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각 반 교실로 이동해서 쌀 반죽과 속 재료




어르신과 함께 송편 빚기

를 이용해 송편을 만들기 시작했다. 영아반은 떡을 만드는데 반죽을 주물럭거리다 바닥에 떨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이런 모습에 어르신들은 “어이구 어찌나~” 하며 안절부절못했다.

그래도 6, 7세반 친구들은 ‘형님반’답게 어르신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며 제법 송편모양에 가깝게 떡을 빚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송편 빚기 활동을 끝내고 가는 어르신들께서는 “내년에도 또 불러~”라며 내년을 기약했고 아이들도 어르신들께 “내년에도 또 오세요~”라고 화답했다.

10월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옷놀이, 11월에는 어르신과 요가 배워보고 안마해 드리기, 12월에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성탄축하 행사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은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활동방법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혼자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요즘, 어르신과 영유아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며, 감사함도 적극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시대를 이끌 수 있습니다”

2016년 '원로에게 듣는다'는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코너다. 이번 호에 서는 조종희 세종YWCA 명예이사를 이희경 세종YWCA 사무총장이 만났다. 조치원YWCA는 1948년 설립돼 조치원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면서 세종YWCA로 명칭이 바뀌었다.(정리 : 편집실)



## 조종희 세종YWCA 명예이사 약력

1971~1974	조치원YWCA 실로암 회원
1981~1984	조치원YWCA 이사
1990~1991	조치원YWCA 건축위원장
1990~현재	세종YWCA 이사
1991~1995	조치원YWCA 회장
2012	제35회 YWCA 전국대회 30년 봉사상
2015	세종YWCA 명예이사 추대
2000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03	연기문인 대상(사회봉사 및 효행부문)
2005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기적 같은 회관 건축

- 1971년 조치원YWCA(2012년 세종YWCA로 변경)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처음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당시 김일례 조치원YWCA 사무총장이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권유로 YWCA 활동을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닦고 싶은 분이었는데 YWCA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YWCA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치원YWCA는 등불야학, 근로Y-틴 조직, 불우청소년 자매결연, 가족법 개정운동, 신용협동조합 창립 등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 YWCA 대선배이면서 51년간 영명보육원장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1,200여 명의 아동을 돌봤습니다. 아동학대 뉴스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1953년 전쟁고아 78명을 수용한 영명보육원을 설립했어요. 어머니가 감리교재단에서 세운 공주 영명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배운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과 소명으로 시작한 일이었으나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일찍 소천하셨고 1966년 어머니 뒤를 이어 제가 보육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 조치원YWCA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1990년~1995년) 회관을 건축했습니다. 모금부터 준공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지요.

“농촌 일손을 돕고자 어린이집을 막 시작한 터에 1958년 부녀회원들이 흠뻑돌로 지었던 회관이 오래되지 않으니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원들이 종자돈을 모으고 후원자를 모아 기금을 마련했으나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필요한 일이니 용감하게 시작을 했죠. 이후 업자들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도 기적처럼 회관 건축을 마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사 회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93년 조치원YWCA 2차회관 및 어린이집 기공식

### YWCA, 영명보육원의 공통점

- YWCA와 영명보육원 두 단어로 회장님 삶을 압축할 수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인지요.

“이 둘은 모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원YWCA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어둡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영양특별사업, 무료직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등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보육원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누군가가 끌어안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영명보육원입니다. YWCA와 보육원 모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YWCA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본받고 싶은 지도력은 어떤 분이었는지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활동해도 YWCA 같은 곳이 없어요(웃음). YWCA에 모이는 회장님들 모두가 존경스럽습니다. 회장님들에게 정신을 많이 배웁니다. 연합회 김숙희 전 회장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분의 씩씩

하고 당당하며 청년 같은 모습이 늘 도전이 됩니다.”

-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고 YWCA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이 많은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점은 아무래도 지혜와 혜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쁜 점은 한번 갖게 된 신념이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도 부리게 되고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YWCA도 100살이면 나이가 참 많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단체가 갖고 있지 않은 지혜와 덕성,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YWCA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청년정신을 잃지 말고 생동감 있게 활동을 펼쳐가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YWCA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좌우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소생하는 느낌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경이 닥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망글라바~ 따리아 바나~~ 쭉쭉!! 난민여성을 위한 한국·태국Y 청년들의 연대

김진주 서울YWCA 간사

서울YWCA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피스인아시아'를 통해 태국YWCA와 1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2006년 '아시아여성 인권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피스인아시아는 인권교육과 해외현장 활동으로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높이는 서울YWCA 해외봉사 활동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인권과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20~30세 청년들이다. 매해 20여 명이 뜨거운 여름 기간 미얀마-태국 국경지역인 매홍손에서 미얀마 난민여성들, 소수민족 카얀족 아이들과 함께 더욱 뜨겁게 여름을 보내고 돌아온다.

## 치앙마이YWCA, 태국Y-틴까지 합류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아시아 난민여성 문제와 성매매 지원단체들이 많은 태국이 여성인권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국가라고 판단했다. 태국YWCA 사무총장과 실무자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었고, 프로그램이 발전해감에 따라 치앙마이YWCA와 태국Y-틴도 합류해 태국-한국 청년들이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게 되었다.

망글라바~(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 따리아 바나~~(까얀족어로 감사합니다), 쭉쭉!!(태국어로 파이팅)로 시작한 2016년 제9차 '피스인아시아'에는 30여 명의 서울YWCA Y-틴이 참가해 치앙마이YWCA와 함께했다.

치앙마이YWCA에서 한국팀 환영행사와 교류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서로간 소개)을 마련했고 태국 사회적기업 방문, 유기농 농장체험을 했다. 그 뒤 치앙마이에서 버스로 6시간 거리 국경지역인 매홍손으로 들어가 20여 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활동했다.

이때도 태국Y-틴 학생들이 함께 들어가 통역을 도와주었다. 태국 난민캠프 WSP(Women Study Program)의 여학생을 만나 여성이슈, 평화이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 탄압으로 미얀마에서 태국 국경지역으로 이주해온 카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7~15세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를 했다.



WSP 학생들에게 핑크박스를 전달하다.

하루 일정을 마친 뒤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피스톡톡(Peace Talk Talk)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며 서로 느낀 점, 편견에서 벗어나게 만든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피스톡톡 시간에는 태국Y-틴과 함께해 다양한 의견으로 풍성했으며, 양국 참가자들이 교류의 정을 다지는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웠다.

## 불교국가인 태국의 YWCA 활동

태국YWCA는 1981년 설립되었고 4개의 지역YWCA와 함께하고 있다. 태국인들은 90% 이상이 불교신도이지만, YWCA를 포함해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어울려 사회발전을 위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YWCA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지역

YWCA 지도자 육성과 개인의 역량발전이다. 둘째는 지역YWCA 프로젝트와 사업방향 설정에 대한 조언이며, 셋째는 YWCA 프로젝트나 활동을 위한 기금조성이다. 또한 다른 나라 YWCA처럼 지역회원들의 역량을 강화,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 크기 때문에 4~5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 데이케어센터와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Y-틴 리더십 훈련인 Super Leade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피스인아시아'는 아시아 청년들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봉사정신을 배우며, 인간의 존엄을 깨닫고 YWCA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협력한다. 지난 10년간 연대로 태국YWCA와 서울YWCA는 아시아 시민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었고,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성과를 이뤘다. 태국YWCA는 올해 활동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기여를 약속했고, 더 많은 한국과 태국 청년들이 뜻 깊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환경조차도 보장되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난민여성들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김예지, 2011년 참가)

그들이 보여준 평화와 자유의 열망 덕분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 (김은혜, 2015년 참가)

이번 봉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목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이 생겼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여름방학을 최고로 잘 보낸 것 같아 행복하다. (고수정, 2015년 참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난민을 '도움 받아야 할 대상'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윤정, 2016년 참가)

피스인아시아 참가자 소감

# 그녀들은 왜 읽는가 출판계 페미니즘 바람

조태성 한국일보 기자

“페미니즘에 대해 발언하면 할수록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종종 ‘남성에 대한 증오’와 같은 의미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같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2014년 9월 UN 여성친선대사 자격으로 미국 뉴욕의 UN본부 연설대에 섰던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 배우 엠마 왓슨의 말이다.

이렇게 당차게 말해놓고도 왓슨 스스로 멧쩍은 듯 “해리포터 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년생이니 당시 우리 나이로 25살. 어린 여자배우 발언이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될는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다.

##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올해 최고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페미니즘’이다. 그간 페미니즘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개 몇몇 유명 대학을 중심으로 학구적인 면모가 강한, 그래서 ‘먹고 살만한 중산층 아줌마들의 담론’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던 쪽에 가깝다.

그러나 올해처럼 대중적으로, 그것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런 페미니즘 열풍은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일단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86 페미니스트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주부로 들어간 반면, 젊은 세대들은 사회생활에서 현실로 부딪히며 문제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다. 대기업 과장급 한 여성은 “특출한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여성적인 성격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여성들이 대규모 공채로

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2000년대 들어서다. 이들이 초급간부로 성장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후배들이 그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모두가 ‘여성상위 시대’를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현장에서 뛰어본 여성들은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유리천장 지수 25.6으로 OECD 꼴찌라는 지표는 이를 잘 드러내준다. 여기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메갈리아 파문까지 불거졌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가 오가는 카톡방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 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한껏 커졌다.

## 젊은 여성들의 변화, 세대교체 뚜렷

이는 고스란히 출판계 페미니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래 페미니즘은 출판계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출판인들 스스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데다 젊은 여성들은 출판 시장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1~7월) 페미니즘 도서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는 교보문고 40.1%, 예스24 114.7%, 알라딘은 178%를 기록했다. 박태근 알라딘 MD는 “사회분위기도 있지만 출판계도 페미니즘이 말하는 문제의식에 동감하고 있다. 젠더관련 서적이 매년 70종 정도 나왔는데 올해엔 100종,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먼저 ‘터진’ 페미니즘 책은 나이지리아 출신 미국 소설가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TED 강



연과 인터뷰를 담은 책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창비)였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관련 서적들이 쏟아졌다. 알라딘 집계로는 판매량 순으로 <나쁜 페미니스트>(사이행성),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은행나무), <아주 작은 차이>(이프), <페미니즘의 도전>(교양인) 등이 인기를 얻었다.

이런 책들을 쭉 살펴보면 ‘쉬운’ 책들이 분전하고 있다. <모권의 세계사적 패배> 같은 어렵고 이념적인 책보다 일상생활의 ‘매뉴얼’ ‘호신술’ ‘대처법’ 등 가깝게 읽힐 수 있는 얇고 가벼운 책이 대세다. ‘이념적 올바름’보다는 ‘생활 속 필요성’이라는 점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다.

알라딘이 집계한 성별, 연령별 구매비중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2014년에는 40대 여성 구매비중이 24.2%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엔 20대 이하 여성들의 구매비중이 42.5%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소장은 “몇몇 대학 중심의 이론적 페미니즘에서 실제적인 페미니즘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등 세대교체 현상이 뚜렷하다. 페미니즘을 잘 모르던 젊은 여성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페미니스트들을 ‘기 썬 언니’쯤으로 여겨왔던 젊은 여성들이 ‘억울함’에 대해 공감하고 얘기 나눌 창구가 필요해진 셈이다.

## 불은 붙었으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젊은이들도 일부 변화를 눈치채고 있다. 여성이지만 페미니즘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직장인 채모(29)씨는 최근 ‘미러링’ 중이다. 요즘은 남자들 외모나 옷차림새를 슬쩍 평가해보기도 한다. 스스로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대학 4학년생인 이모(23)씨는 주변 남학생들의 변화에 놀라고 있다. 이씨는 “메갈리아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여전히 페미니즘을 불편하게 여기긴 하는데 워낙 페미니즘 이야기가 쏟아지다 보니 예전에 비해 뭔가 고민은 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변했다”는 단정은 이르다. 메갈리아 티셔츠를 인정한 성우와 이를 지지한 웹툰 작가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메갈리아 기사로 주간지 <시사인>이 격한 항의와 절독사태에 시달렸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담론의 유행과 실제 행동에는 일정 정도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남자로서 용감하게도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책으로 여성혐오 현상을 비판한 사회학자 오찬호 역시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지고 정교해졌고, 이에 공감하는 남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여성들의 고발과 남성들의 응전이라는 갈등형식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불은 붙었으나 갈 길은 아직 멀다.

# 세월이 가도 봉사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2016 YWCA 전국증경회장모임이 서울YWCA 주관으로 9월 27일(화)부터 28일(수)까지 1박2일간 열렸다. 전국에서 130명의 증경회장이 참석한 이번 모임은 연합회, 서울YWCA, 하이유스호텔,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진행되었다. '소통과 변화의 리더십' 특강, 새 회장단 선출 등과 함께 김활란장학금 활성화를 위한 모금운동 동참을 결의했다. 2년마다 열리는 전국증경회장 다음 모임은 부산YWCA가 주관한다.



## 연합회 소식 10월

### 10월 월례 아침 기도회



10월 YWCA 월례 아침 기도회가 10월 6일(목) 오전 9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진희 목사(안산대학교 교목)가 '겨자씨 하나님 나라(마가복음 4장 30~32절)의 제목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래로 꾸는 꿈을 꿀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남부 지역과 YWCA가 펼치고 있는 운동을 위해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 지역별 Y-틴 간담회



YWCA 청소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Y-틴 간담회가 9월 20일(화) 동부지역(창원)을 시작으로 9월 29일(목) 중부지역(대전), 9월 30일(금) 서부지역(목포)에서 각각 열렸다. 35개 회원YWCA에서 사무총장, Y-틴 위원회(청소년부 위원회), Y-틴 간사가 참여했으며 연합회에서는 한영수 부회장과 김영자·백혜진 실행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Y별 청소년활동 소개, Y-틴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청소년운동을 위한 역할을 모색했다. 북부지역 간담회는 10월 19일(수) 서울 연합회에서 열렸다.

### 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발 및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는 심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

에게 성매매를 조장·알선·유인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발하고, 심각성을 알리고자 10월 11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진경 심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의 사회로 성착취 피해자인 미성년자 고소인 발언과 안수경 연합회 Y-틴 위원장,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의 공동고발이 이어졌다. 이번 공동고발에는 247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 YWCA 가정폭력·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성평등위원회 주최로 YWCA 가정폭력·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9월 26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WCA 여성폭력예방 운동 방향과 각 시설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시설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YWCA(고양, 광주, 논산, 대전, 속초, 안양, 청주, 포항, 광명, 하남, 세종, 울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쉼터·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시설장을 비롯해 연합회 위원과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 사천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



한국YWCA연합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협력사업인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10월 7일(금) 문을 열었다. 사천시에 민간지원 취약계층 아동돌봄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사천시 용현면은 다문화가정이 밀집된 지역으로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부모상담과 학부모 모임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에 주력하고자 한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본부 출범**



YWCA를 비롯한 환경·여성·정치·지역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본부'가 10월 11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발전소 밀집지역의 잇단 지진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 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탈핵을 앞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위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YWCA를 비롯한 환경·여성·정치·지역 단체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탈핵에너지 전환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동일임금의날 제정 촉구 위한 국회의원 면담**

한국YWCA연합회는 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동일임금의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9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동일임금의날 입법 제정 촉구와 활동 협력을 요청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박선대구YWCA 사무총장, 민혜경 서울YWCA 국장, 한운덕 여수YWCA 사무총장, 반혜영 창원YWCA 사무총장과 김재희 부장, 원영희 연합회 부회장과 박은실 중점운동국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광주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

한국YWCA연합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협력사업으

로 진행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광주직할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10월 11일(화) 문을 열었다. 이주동포 공동체 '고려인 마을'이 위치한 월곡동 일대는 다문화가정도 많은 곳으로 취약계층 아동 야간보육과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 상담과 가족상담, 학부모 모임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소로 한국YWCA는 제천, 파주, 하남, 논산, 안동, 사천을 포함해 모두 8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2016 여성평화결기 사진전**



2016여성평화결기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여성평화결기 사진전이 10월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서울 명동성당 1898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쟁없는 한반도! 여성, DMZ 넘어 평화를 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5월 28일(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와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염원한 여성과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월 15일(토) 명동성당 앞에서 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도 펼쳤다. 12월 12일(월)부터 26일(월)까지는 고양시청 로비에서도 사진전이 열릴 예정이다.

**김활란기념장학금 기금 마련 바자회**

김활란기념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10월 13일(목) 한국YWCA연합회 주차장에서 열렸다. 김활란기념장학금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바자회에서는 연합회 장학위원회 위원과 활동가가 이중임 김치, EM제품, 누비백을 판매했다. 한편 김활란기념장학금은 YWCA 청소년 훈련 지원과 장학금을 위해 기탁한 기금으로 제정되었으며,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하던 중 최근 금리하락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어 바자회를 통해 모금하게 되었다.



**청년기자단 Y러너 제4차 정기모임**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YWCA 활동을 전하는 청년기자단 'Y러너' 제4차 정기모임이 10월 8일(토) 연합회에서 열렸다. 9월 활동나눔과 10월 콘텐츠 기획에 이어 '기사 첨삭지도' 시간을 가졌다. 청년기자단이 취재한 기사는 YWCA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씽크머니 심화강사 교육**



2016년 YWCA 씽크머니 심화강사 교육이 10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전국 7개 회원YWCA에서 실무자와 씽크머니 기초강사 교육을 수료한 씽크머니 강사 16명이 강사로서 소명의식과 전문능력을 키우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참석했다. 지난 기초강사 교육에 이어 1박 2일로 진행된 심화강사 교육은 대상별·영역별로 심화된 교수법과 모의수업, 금융환경 이해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태풍 피해 동부, 서부지역위원회 긴급지원**

한국YWCA연합회는 10월 5일(수) 실행위원회에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을 돕고자 동부 지역위원회와 서부지역위원회에 홍수피해 긴급지원 기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한양대Y 조직을 위한 청년영성훈련 모임**



청년영성 훈련교재 개발과 한양대Y 조직을 위한 청년영성 훈련모임이 9월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청년을 위한 YWCA 영성 훈련 교재-청년예수'로 청년예수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공부하며 Y청년으로서 기초 영성을 쌓는다. 한양대Y는 2015년 가을학기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청년회원들과 연합회 활동가가 이끄는 한양대 교목의 진행으로 '청년예수' 교재나눔을 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올해 말 '청년예수II'로 출간된다.

**2016 KDB 사회적기업 지원금 전달**



한국YWCA연합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활성화 지원센터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16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식이 10월 17일(월) 오후 2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총 1억 8천만원을 지원한

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시설비, 사업개발비, 연구개발비 등 사업기반 자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지원한다. 전달식에는 지원기업 대표자를 비롯해 KDB나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6 YWCA 돌봄임원 워크숍



돌봄임원 워크숍이 9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버들캠핑장에서 1박 2일간 열렸다. 지역 임원들과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YWCA 직업훈련의 역사와 돌봄정의운동에 대한 강의, 노동법 이해, 돌봄미 강사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스피치 강의로 진행되었다.

NCS 가사지원분야 능력단위 추가개발 중간보고



2015년 개발한 NCS 가사지원분야에 공간정리수납(유품정리 포함)에 해당하는 능력단위를 추가로 개발한다. YWCA 돌봄 관련 실무자들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개발진이 1, 2차 워크숍을 진행하고, 10월 10일(월) 심의위원들이 모여 결과물을 검토했다.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NCS 가사지원분야는 총 11개(가사관리와 설계, 가사 기본관리, 방 청소, 주방 청소, 욕실 청소, 베란다 청소, 빨래와 다림질, 특수청소, 정리수납, 공간정리 컨설팅, 유품정리) 능력단위로 구성된 표준안이 활용된다.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젊은지도자상에 탤런트 신애라씨, 특별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YWCA 지도자로서 여성권리 확립을 위해 애쓴 박에스더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3년 제정된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YWCA 제14대 사무총장 선임



세계YWCA 제14대 사무총장으로 말라야 하퍼(Malayah Harper)가 10월 17일(월) 선임됐다. 캐나다와 영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퍼 사무총장은 우간다와 케냐 유엔에이즈 성평등위원회(Gender Equality and Diversity for UNAIDS)에서 일했으며, 세계 여성과 소녀 그리고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왔다. 또한 성(性)과 생식에 대한 건강과 권리(SRHR)를 포함한 젠더 이슈에 큰 관심을 갖고 여성 리더십, 권리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부고



**고의순 은학의집 운영위원 별세**  
YWCA 은학의집 운영위원회 고의순 위원(77세)이 2016년 10월 10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고 위원은 한국YWCA연합회 청소년위원(1992~2006), YWCA 버들캠핑장 운영위원(2006~2009), YWCA 은학의집 운영위원(2006~2016)을 지내고 오랫동안 한일YWCA청소년협의회와 한일YWCA협의회에서 통역으로 봉사했습니다. 고 위원은 지난 8월 2016 YWCA 전국회원대회와 제9회 한일YWCA협의회 통역봉사를 마친 뒤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40여 일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위원의 YWCA를 향한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정

**신희운 명예연합위원** 한국YWCA연합회 공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2016. 10. 10)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이웃사랑 민들레 나눔장터



강릉YWCA는 9월 30일(금) 래미안웨딩홀에서 '강릉YWCA 이웃사랑 민들레 나눔장터'를 열었다. 이사위원, 실무자들이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익금은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 다문화여성 멘토링, 다문화자녀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동해YWCA

안지원 팀장

무료급식소 어르신 위한 '은빛동행 도란도란'



동해YWCA는 무료급식소 민들레 밥상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은빛동행 도란도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글배움터, 미술배움터, 노래배움터, 몸과 마음건강 배움터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울릉중학교 '꿈을 찾는 학교 만들기'

서울YWCA는 포스코와 함께 9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

지 경북 울릉중학교에서 진로체험 '꿈을 찾는 학교 만들기 포스코 드림브릿지'를 열었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직접 경험해보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진로교육, 꿈 강연, 학교공간 바꾸기, 벽화꾸미기 등을 진행했다.



인천YWCA

김다실 간사

인천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제18회 인천YWCA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0월 11일(화)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연주회 수익금은 차세대를 이끌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사용된다. 44년 전 창단된 인천YWCA합창단은 국내외 정기연주회로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복지, 청소년문화육성, 여성복지와 여성권익 증진에 사용해왔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친환경 EM전문가 양성교육

춘천YWCA는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친환경 EM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5일에 걸쳐 유용한 미생물 EM의 정의, 기본원리 익히기, 활용법, EM비누·EM주방세제·EM세탁세제·EM화장품·EM퇴비 만들기 등을 배웠다. 춘천

YWCA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합성세제 대신 EM을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EM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만드는 건강한 남양주 생활정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양주 YWCA는 지역 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들의 정치 관심도를 높이고 양성평등으로 발전하는 시가 되길 바라면서 여성정치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 경기

###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



고양YWCA는 고양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그림을 처음 배우는 여성들을 위한 기초 덧셈, 세밀화 그리기, 동화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주도적 활동을 통한 마을 학습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지역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남양주YWCA 이종은 간사

#### 의정지킴이 '디딤돌 학교'와 의회방청

남양주YWCA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9월 10일(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여성 의정지킴이 '디딤돌 학교' 수료생들과의 회를 방청하고,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여성이

### 부천YWCA 이지원 간사

#### '애들아 함께 밥먹자' 캠페인



부천YWCA는 9월 23일(금) 부천부곡중학교에서 '애들아 함께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등교시간에 맞춰 준비해간 주먹밥을 학생들,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천부곡중학교 학생회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패널을 만들어 게시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더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

### 성남YWCA 이보경 주임

#### 젠더관점 학교 안전시설 모니터링

성남YWCA는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아 9월부터 지역 초·중·고·대학에서 젠더관점 안전시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성인지 관련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모니터링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수원YWCA 정지영 간사

#### 수원시민햇빛발전 2호기 준공



수원YWCA는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수원시민햇빛발전 2호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9월 27일(화) 준공식을 열었다. 수원YWCA 창립 47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예배 후 진행된 준공식에는 회원들과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용량은 40kw로 연간 48,177kw의 전기를 생산하고, 2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산YWCA 문성은 간사

#### 사회적 기(氣)업(UP) 꿈의학교 개교



안산YWCA는 9월 24일(토)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사회적 기(氣)업(UP) 꿈의학교' 개교식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

이 주최하는 꿈의학교는 정규교육 과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학교 밖 학교'를 뜻하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꿈의학교는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체험을 통해 기업이 정신을 키우고, 참가학생 스스로 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찾아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 안양YWCA 김순태 간사

####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표어·포스터 시상'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7월 1일(금)부터 8월 26일(금)까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시민이 참여하는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했다. 이번 공모는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학교폭력을 주제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인권 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어른들의 반폭력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심사를 통해 18개 작품을 선정하고, 9월 7일 안양 동안평생학습센터 광장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 의정부YWCA 김지혜 팀장

#### 숲놀이 '자연애 교실'



의정부YWCA는 의정부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놀이 '자연애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숲 놀이를 통해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이번 교실은 9월엔 뿔라 지역아동센터, 해맑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참

# 회원YWCA 소식 10월

여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가을 나무, 가을 하늘, 가을 곤충, 가을 열매 등을 탐색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

선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20명이 참여해 껌잎밭 체험, 껌잎 만두와 껌잎쌈밥 만들기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논산YWCA는 지난 봄부터 매달 (주)좋은마음, 아리랑 푸드, 꽃비원 등 농장에서 청소년 주말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 파주YWCA 서동희 간사

### 파주생명꿈나무돌봄센터 나눔밥상



파주YWCA가 운영하는 파주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서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나눔밥상 행사를 진행했다. 9월 1일(목) 금촌 고기로드에서 열린 '파주YWCA 일일 나눔밥상'에 파주지역 관공서·단체·교회 관계자와 시민 600여 명이 참여했다.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길 바라는 지역사회 관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 대전YWCA 이다정 간사

### 추석맞이 Y-큰장날



9월 8일(목) 대전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Y-큰장날을 열었다. 대전YWCA 주차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추석 선물용품, 지역농산물, 대전YWCA에서 직접 만든 송편, 양배추 보쌈김치, 육개장, 즉석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13개 위원회를 비롯해 이사·위원, 주민 등 700여 명이 방문해 건강한 먹거리운동, 자원재활용을 통한 착한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제천YWCA 김미경 간사

### 어린이 초록환경교실



제천YWCA는 9월 3일(토)부터 4회에 걸쳐 초등학교 20명과 함께 어린이 초록환경교실을 진행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계 등 환경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EM발효액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원주 기후변화체험관 견학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배웠다.

## 중부

## 논산YWCA 권연정 간사

### 도담도담 신나는 주말체험



9월 10일(토) 햇빛촌 바랑산마을에서 '도담도담 신나는 주말 체험'을 진행했다. 바른 먹거리 실천을 통한 청소년 식습관 개

## 천안YWCA 정상란 간사

### 친환경체험 부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9월 3일(토) 천안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천안시 사회복지 축제와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다. 천안YWCA는 이번 행사에서 탈핵생명운동의 하나로 EM활성액 만들기와 자전거발 전기 체험부스를 열었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도 진행해 북한어린이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 청주YWCA 박보람 간사

### 로컬푸드 생산지 견학체험



청주YWCA는 9월 28일(수) 여섯 번째 회원체험 행사로 우리 지역 로컬푸드 생산지인 '신나유농장'에서 20명의 회원들과 찹쌀고추장을 만들었다. 전통 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며 땅과 농민,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충주YWCA 김세희 간사

### 충주YWCA 회관이전 감사예배

9월 1일(목) 충주YWCA 회관이전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이재훈 충주감리교회 목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회관이전의 뜻을 회원들과 나눴다. 충주YWCA는 충주시 천변로 163에 있는 4층 건물을 구입하면서 32년간 품어왔던 회관이전의 꿈을 이루었다.



## 서부

## 광양YWCA 이현숙 간사

### 취약계층 어르신 소비자교육



광양YWCA는 9월 28일(수) 광양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와 중마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김정민 순천YWCA 부장이 유형별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처방법을 강의했으며, 노인 소비생활에 대한 자주적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번 소비자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양YWCA가 주최했다.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조아라기념관 작은음악회, 인권아카데미

광주YWCA 소심당조아라기념관에서는 여성역사 복원하기 프로그램으로 '여성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작은 음악회와 인권아카데미를 열었다. 9월 3일(토) 열린 작은 음악회에는 지역주민들과 기념관이 자리한 양림동을 찾은 방문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남구 예술가 모임인 '꿈꾸는 예술'의 음악 재능기부로 조아라기념관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9월 29일(목) 열린 인권아카데미에서는 오현선 호

남신학대학 교수가 '프레임을 넘어 살기' 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수피아여고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 하반기 살림·산모돌보미 교육



남원YWCA는 9월 13일(월)부터 23(금)까지 하반기 살림·산모돌보미 교육을 진행했다. 살림·산모돌보미의 의미를 기독교 사명의 정체성으로 살펴보고 돌보미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실습 교육에서는 다림질과 베이비 마사지를 해보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원YWCA는 돌봄 운동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지역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목포YWCA**곽수현 부장

### 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



목포YWCA는 성차별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으로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여성과 청소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9월 24일(토)에는 목포YWCA 강당에서 청소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강연을 열었다. 김밀양 목포대학교 교수가 '양성평등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성인지 관점, 차이와 차별의 사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제 등을 강의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자녀 진로교육 학부모 특강



서귀포시 진로교육지원센터 '꿈what'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이해와 인식 전환을 모색하고자 서귀포YWCA회관에서 진로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9월 29일(목)에는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이 '창의적인 부모가 만드는 독특한 진로 이야기'를 주제로, 10월 6일(목)에는 임한규 웰스터디 공부환경연구소 대표가 '스펙을 버리면 진로가 보인다'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위탁을 받아 서귀포YWCA가 운영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올해 '꿈What'이라는 센터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순천YWCA** 김민정 부장

### 순천YWCA합창단 시민행복합창제 참가



순천YWCA합창단은 KBS 순천방송국이 주관한 '2016 시민 행복합창제'에 참가했다. 9월 24일(토) 여수시 GS칼텍스 예

울마루에서 열린 이번 합창제에는 순천, 여수, 광양시에서 15개 합창단이 참여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樂(락)페스티벌



여수YWCA는 9월 10일(토) 학동 거북선공원에서 청소년여울림마당 '동아리樂(락)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댄스, 밴드, 랩, 환경, 봉사, 공예, 창작 등 30여 개 동아리가 공연을 펼치고 부스를 운영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2016 남북하나되기 북한음식 박람회



전주YWCA 전북하나센터는 9월 24일(토) 전주대 한식문화홀에서 '2016 남북하나되기 북한음식 박람회'를 2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전북도민이 함께하는 잔치로 북한의 맛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남북 화합과 통일을 염원했다. 북한이탈주민과 정착도우미의 손을 거쳐 녹두묵채, 오메기떡, 두부밥 등 모두 9가지 음식을 선보였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 청소년 진로탐색 위한 '내안의 별찾기'

제주YWCA는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생명나무학교 청소년

20명과 함께 진로발견과 진로체험을 위한 '내안의 별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9월 29일(목)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찾아아나운서 특강, 카메라감독·아나운서 체험, 음향 스튜디오 녹음을 체험했다. 디지털 책집 '스튜디오 답음'에서는 푸드코디네이터 체험을 하고, 10월 7일(금)에는 제주정석비행장에서 항공기 관람과 파일럿 체험을 했다.



## 동부

**거제YWCA** 홍윤정 팀장

###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씽크머니'



거제YWCA는 9월 27일(화), 30일(금) 하청초등학교와 진목초등학교에서 '씽크머니-찾아가는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 하청초등학교 6학년 30명과 진목초등학교 5학년 120명은 착한기업가 체험활동으로 자본금 정하기, 예산계획 세우기, 지출내역 기록하기 등을 직접 해보았다. 기업가가 되어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기부하는 활동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장에 저금하는 활동도 경험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자연생태지도사 훈련 프로그램 수료

9월 28일(수) 강당에서 자연생태지도사 훈련 프로그램 수료

식을 열었다. 김해YWCA는 고용노동부와 김해시 후원으로 5월 23일(월)부터 9월 28일(수)까지 총 239시간 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연생태지도사 취업연계사업을 진행했다.



## 대구YWCA 배민희 간사

### 프로그램협의회 역량강화 연수

대구YWCA는 9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3/4분기 프로그램협의회 연차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1년차 미만 간사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YWCA 중점운동 '탈핵'을 주제로 부산 고리발전소와 경주 월성발전소를 다녀와 탈핵운동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 부산YWCA 윤영인 간사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출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가 9월 29일(목)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YWCA를 비롯한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참여한 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전면 취소를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하선규 부산YWCA 회장이 상임공동대표로, 성인심 사무총장이 공동집행위원장. 부산YWCA가 공동사무국을 맡아 핵발전소로부터 부산시민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 마산YWCA 박주옥 부장

### '차.고.한(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가족캠프'



마산YWCA는 9월 30일(금)부터 10월 1일(토)까지 통영 세자트라숲에서 모두 15가족이 참여한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가족'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성차별 인식을 없애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지원



9월 3일(토)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사천문화재단이 주관한 토요일 상설무대 '프로포즈'에서 지역농산물 직거래 지원활동을 했다. 사천YWCA는 지역 농산물 전시와 홍보를 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농가를 연계하며,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때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양산YWCA 박경하 간사

###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살롱'

양산YWCA는 지역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살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9월 22일(목)에 양산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들과, 26일(월)에는 벨엘클럽하우스 정신지체장애인들과 천연화장품 만들기, 양말인형 만들기를 했다. 이날

강사로는 지난 7월 여성문화살롱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원활동가가 나섰다.



## 진주YWCA 고명정 팀장

### 다문화청소년 키다리풋살팀 지역대회 출전



진주YWCA 다문화배경청소년들로 구성된 키다리풋살팀이 9월 10일(토) 진주시 문산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청소년 클럽대항 풋살대회에 출전하였다. 올해 4월에 창단한 키다리풋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의 다문화배경 청소년들과 진주지역 청소년 15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대회에서 키다리풋살팀은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 진해YWCA 엄정희 간사

### 다래교실 학생들, 노인정 봉사활동



진해YWCA는 10월 5일(수) '다래교실' 학생들이 지역노인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안마와 네일아트를 해드리고 핸

드폰 액세서리 만들기를 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창원YWCA 정미영 간사

### 중학교 대상 청소년금융교실 '씽크머니'



9월부터 12월까지 신월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금융교실 씽크머니를 운영한다. 창원YWCA 씽크머니 금융강사들이 씽크머니 교재와 다양한 부교재를 활용하여 17차례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다. 9월 9일(금) 첫 수업에서는 '뽀뽀로'가 격인상으로 돈의 가치를 알아보고, 돈 열매(50원)가 열린 나무를 그려보면서 돈의 소중함을 배웠다.

## 포항YWCA 김수영 간사

### 아침밥먹기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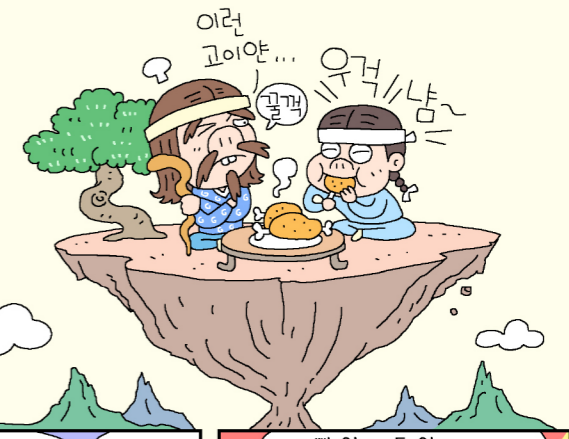


포항YWCA는 9월 29일(목) 오전 대동 중·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밥먹기 캠페인 '애들이 밥먹자!'를 진행했다. NH농협은행 포항시지부, 포항제일로타리클럽의 후원과 참여로 우리쌀로 만든 꿀 백설기를 나누어 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아침밥 먹는 횟수를 조사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건강도 지키는 식습관을 권장했다.

10월 · Octo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여수Y 양성평등 교육 양산Y '인형극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찾아가는 자선공연	5 연합회-세계YWCA 화상회의 청주Y 기독교모아카데미 개강	6 거제Y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11/3) 남양주Y 아나바다 장터 포항Y 축산물HACCP 소비자 바로알기 현장체험	7 사천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고양Y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대전Y 신임위원연수 부천Y 부천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집담회 안산Y 회원증모음동 발대식 의정부Y 경력단절여성 취업트크콘서트	8 광양Y 청소년 성문화 체험관 탐방 대구Y 카부츠 베틀시장
9	10 NCS 중간보고회 전주Y 성인지 감수성 핵심리더 양성과정 춘천Y 살림돌보미교육 개강(~14일)	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교발 기자회견 광주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목포Y 추석바자회 수익금 나눔 행사 안양Y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천Y 찾아가는 썩크머니 청주Y 기독교여성,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개강 양산Y EM홍공 던지기 인천Y 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12 여성평화경기 1차 사진전(~18일) 강릉Y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을 나들이 부산Y 스텝 웨딩 패키지 소비자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 간담회 서귀포Y 평화아카데미 제6강 창원Y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포항Y 결혼이민여성 한국요리페스티벌	13 서부지역위원회 연수(~15일) 여성평화경기 사진전 오프닝 리셉션 서울Y 큰장날 제천Y 애들이 밥먹자! 창원Y 탈핵행동시민연대 '차량캠페인'	14 남양주Y 이사위원-실무자 워크숍 수원Y 학부모 대상 성인지교육 안양Y 여성진로페스티벌	15 대전Y 창립70주년 기념 생명·평화 한마당 충주Y 환경사랑 체험단 푸르미 환경캠페인 양산Y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
16	17 춘천Y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교육 개강(~26일) 광양Y 창립기념일(1990.10.17.)	18 천안Y 이사-직원 연합 워크숍 광양Y 창립기념일(1990.10.17.)	19 Y-틴 북부지역 간담회 썩크머니 심화강사교육(~20일) YWCA 소비자 모니터링교육 광주Y 가을장날(~20일) 부천Y 돌봄과 나눔의 장터	20 한국YWCA 정책교육(동부지역) 목포Y 식의약 소비자안전교실 수원Y Y정책포럼 순천Y 여성일자리박람회 안산Y 애들이 밥먹자! 제주Y 자유학기제 진로캠프(~21일) 대구Y 시월애(愛)큰장날 충주Y 애들이 건강한 밥먹자	21 강릉Y 애들이 밥먹자 고양Y 가을나눔행사(바자회) 천안Y 신입회원 환영회	22 의정부Y 바자회 목포Y 부모교육
23/30 고양Y 창립기념일(1989.10.30)	24/31 의정부Y 찾아가는 썩크머니	25 기후변화와 여성 원탁회의 창원Y 식의약 안전교육 충주Y 회원프로그램 '수다방'	26 제4차 길 위의 평화학교 강연회 고양Y 27주년 창립 기념예배 전주Y 2016 착한(着韓) 통일을 위한 '통일 영화제'	27 한국YWCA 정책교육(경기-북부지역) 인천Y 사랑의 대 바자회	28 거제Y 셋바람 프리마켓	29 청주Y 농부의 이야기를 담은 직거래장터

# 노인들니 & 임플란트 곱여확대



글:그림/ 김평현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